

적합성 이론으로 살펴본 시적 효과와 문체

최 정 희*

The Relevance Account of Poetic Effects and Styles

Jeong-Hee Choi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poetic effects and styles in terms of relevance theory (Sperber and Wilson 1986). Poetic effects are derived from the accessing of a large array of very weak implicatures in the pursuit of relevance. Style arises in the search of relevance, and stylistic differences are ones in the way relevance is achieved. To explain poetic effects in detail, we focus on repetition, gapping and metaphor. The relevance account of poetic effects shows how figurative language like repetition, gapping and metaphor is not in itself poetic, but can be poetic if the encouragement to explore context in the search for an 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elevance is rewarded with the accessing of a wide range of implicatures.

1. 서 론

일상 언어와 시적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인지 화용론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각각의 처리속도의 차이일 것이다. 즉 일상 언어를 처리할 때는 거의 지각(perception)과 동시에 이해가 가능하지만 시적 언어를 처리할 때는 지각한 후에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처리 노력과 시간이 더 많이 들게 된다.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 Sperber and Wilson 1986)에서는 이렇게 발화를 처리하는데 여분의 많은 노력이 소비되고 그에 따른 인지적 효과가 나올 때 이것을 '시적 효과(poetic effect)' 라고 말한다. 이 이론에서는 시적 효과를 내는 발화가 비단 시적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일상 언어에도 확대되어 모든 종류의 언어를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발화와 시적 발화는 공히 '최적의 적합성을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자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여분의 처

*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과 시간강사

리 노력과 그에 따른 효과를 낸다면 그것은 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적합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로 시적 효과를 낼 것인가에 따라 어떤 것은 명시하고 어떤 것은 묵시적으로 남겨둘 것인가에 의해 문체가 결정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체와 시적 효과를 문학이나 사회적인 관점이 아닌 인지적 관점인 적합성 이론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문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짧게 정리하고 3장에서는 적합성 이론 내에서 시적 효과와 문체를 다룰 것이다. 반복법, 공백화라는 수사적 표현을 예로 들어 시적 효과를 설명하겠다. 특히 4장에서는 은유에 대한 의미적 분석의 문제점을 들고 적합성 이론으로 은유를 다룰 것이다.

2. 문체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

문체론(stylistics)은 문맥이나 화자의 의도, 목적, 시대상황 등에 따라 언어 표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으며 달라지는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문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사회적 맥락에서 다루어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인지 화용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문체론에 대해 Culpper(1995)가 역사적으로 살펴본 것은 요약하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적 문체론(literary stylistics)의 범위는 개별 텍스트의 언어나, 작가, 장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은유, 연설, 관점 등의 텍스트적 현상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하다. 문학적 문체론은 Leo Spitzer(1948)와 프랑스 문체론가들에 의해 유럽에서 시작되어 1930년대와 1950년대에는 영국에서 실용 비평(Practical Criticism), 그리고 미국에서 신비평(New Criticism)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Crystal과 Davy(1969)와 Enkvist(1964, 1973)가 일반 문체론(general stylistics)을 발전시켜 비문학적 텍스트의 문체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사회적 맥락이 언어의 형식적인 자질을 어떻게 제한하는가와, 언어적인 요소가 맥락적인 규범에 따라 그 빈도와 밀도를 어떻게 달리하게 되는가 등을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인지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문학적 텍스트나 비문학적 텍스트를 다루어 그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에 대한 인지적인 고찰을 하는 이른바, 인지 화용론적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de Beaugrande와 Dressler(1981)의 텍스트 언어학과 Sperber와 Wilson(1986)의 적합성 이론이 대표적인 것이다. 다음 장에서 문학에서 주로 다루어 오던 시적 효과와 문체를 인지 화용론적 관점을 취한 적합성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적합성 이론

Sperber와 Wilson(1986)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과정은 최소의 처리 노력으로 최대의 인지효과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 개인은 그가 다룰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듯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곧 한 개인의 주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전달된 정보가 적합한 것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정, 즉 전

달되는 정보는 적합성의 보장과 함께 의사소통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적합성 원리라고 부른다. 적합성 원리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은 명시 의미(explicatures)와 아울러 함축 의미(implicatures)를 낳는다. 명시 의미란 하나의 완전한 명제 형식(propositional form)을 갖추고 언어화된 축어적 단언이다. 이는 발언의 논리 형태(logical form)에서 생성되며, 의미표상인 상정스키마에 중의성 제거, 지시 대상 부여, 의미보충이 일어난 후에 명제 형식이 확정된 것은 물론 명제적 태도까지 선택된 후의 것이다. 함축 의미란 화자의 발언이 명백한 타당성을 지니며 청자에게 명백히 전달되도록 화자가 의도하는바 맥락적 상정내용이다. 이러한 함축 의미는 적합성 원리에 의해서 복원된다. 화자는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적합성을 띠 것인가에 대해 명백한 계산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적절히 관련해서 청자는 적합한 함축 의미를 복원하게 된다. Sperber와 Wilson은 모든 함축 의미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종류와 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최강성 함축(the strongest implicature)은 적합성 원리와 일치하되, 전적으로 화자 책임하에 복원되는 함축 의미이다. 강성 함축 의미(strong implicature)는 화자가 청자에게 강력히 권고하는바 함축 의미로서 청자와 화자 상호의 인지환경을 수정하게 된다. 약성 함축 의미(weak implicature)는 적합성을 기한 것이되, 다만 인지환경을 조성할 뿐, 하나의 특별한 함축 의미의 상정은 전적으로 청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 (1) a. 피터 : Would you drive a Mercedes?
b. 메리 : I wouldn't drive any expensive car.

피터는 (1b)의 발화를 듣고 자신의 백과사전적 정보를 즉각 액세스하여 (2)와 같은 함축 전제와 (3)과 같은 함축 결론을 낳는다.

- (2) 메르세데스는 비싼 차다.
(3) 메리는 메르세데스를 몰지 않는다.

(1b)는 (1a)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지만 함축적인 대답이다. 이 함축 의미는 거의 확정적이어서 화자가 전적으로 해석에 책임을 지는 최강성 함축 의미이다.

(1b)를 듣고 피터는 다음과 같은 전제와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 (4) 함축 전제 : 롤스로이스는 비싼 차다.
함축 결론 : 메리는 롤스로이스를 몰지 않는다.
(5) 함축 전제 : 캐딜락은 비싼 차다.
함축 결론 : 메리는 캐딜락을 몰지 않는다.
(6) 함축 전제 : 비싼 차를 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부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
함축 결론 : 메리는 부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강도가 높은 함축 의미로서, 청자는 이들에 대해서 강한 권유를 받지만 강요를 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다음과 같은 함축전제와 결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 (7) 함축전제 : 비싼 차를 몰지 않으려는 사람은 유람여행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 (8) 함축결론 : 메리는 유람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청자가 (7)을 보충해서 (8)의 결론을 내도록 화자(메리)가 권유했을 리 없고, 이때 그런 전제나 결론에 대해 전적으로 청자 혼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약성 함축의미이다. 권유의 정도가 약하고 청자의 선택범위가 넓을수록 함축의미의 강도가 약해진다.

Sperber와 Wilson(1986, 222)은 시적 효과를 '넓은 범위에 걸친 일련의 약성 함축의미를 통해서 적합성을 달성하는 발화의 특정효과'라고 정의했다. 즉 시적 효과란 대단히 약한 일군의 함축의미들을 액세스하는 결과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문체의 차이란 바로 적합성이 성취되는 방식의 차이이다. 문체가 달라지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는, 어느 정도의 차이로 시적 효과에 의존하는가 하는 점이며, 또한 이는 함축의미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명시적 의미에서 정보의 배경과 전경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문체가 달라진다. 문체의 선택은 어느 화자나 작가에게도 불가피한 일이다. 적합성을 겨냥하는 화자는 청자의 인지능력과 맥락적 자원에 대해서 이러한 상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화자가 의사소통하는 방식, 특히 어떤 내용은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어떤 내용은 묵시적으로 남겨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필연적으로 반영된다.

시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반복법과 공백화를 살펴보겠다.

3.1 반복법(repetition)

우선 반복법을 예로 들어보자. 발화의 해석에서 반복법이 생산해 내는 시적 효과는 결코 일정하지 않다.

- (9) There were houses, houses everywhere.
- (10) My childhood days are gone, gone.

(9)에서는 청자의 생각보다 더 많은 집이 있었다는, 다시 말해서 대단히 집이 많았다는 점을 화자가 지적하고자 했다고 상정하는 것이 적합성 원리와 일치한다. 그러나 약성 함축의미를 놓지 않기에 시적 효과를 달성하지는 않는다. (10)의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방식의 맥락 확장과 더 넓은 범위의 약성 함축의미들의 배열에서 적합성이 추가로 달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다시 말해서 청자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버린다는 것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상상하는 책임도 아울러 져 주기를 (10)은 종용한다. (10)은 다음과 같은 함축의미를 낳는다.

- (11) 함축전제 : 어린 시절은 천진난만하다.
함축결론 : 화자의 천진난만한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
- (12) 함축전제 : 어린 시절은 걱정이 없다.
함축결론 : 화자의 걱정없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

사람들은 (10)의 발화를 듣고 ‘어린 시절’에 대한 개념을 탐색해서 많은 약성 함축의미를 낳는다. 반복법이라는 수사적 표현자체는 시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다만 반복법이 사용된 발화가 많은 약성 함축의미를 통해 적합성 원리를 추구해 가는 중에 시적 효과가 생긴다.

3.2 공백화(gapping)

현대 통사론자들이 공백화(gapping)라 하고, 고전 수사학자들은 액식어법(zeugma)이라고 부르는 통사구조를 살펴보자.

(13) Mary went on holiday to the mountain, Joan to the sea, and Lily to the country.

(14) Mary came with Peter, Joan with Bob, and Lily with a sad smile on her face.

이 예들은 통사, 의미, 음운론적으로 분명한 병행구조들이지만 시적 효과에서 차이가 난다. (13)의 병행구문은 두드러진 문체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지만 (14)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달성한다. 그 이유는 (13)의 경우는 통사적 병행구문과 의미적 병행표현이 일치하므로, 매우 보편적인 맥락에서는 그 병행적 맥락효과가 쉽게 달성된다. 그러므로 (13)의 병행구문은 특별한 맥락효과를 내서가 아니라 단지 처리노력을 줄이는 것으로 적합성에 기여한다.

(14)의 경우는 세 번째 절에서 통사적 병행구문이 유사한 의미적 병행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얼굴에 슬픈 미소’는 ‘피터’나 ‘밥’과 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14)의 경우 청자의 임무는, 메리는 피터와 함께, 조안은 밥과 함께, 그리고 릴리는 얼굴에 슬픈 미소를 띠고 왔다는 사실이 동일한 함축내용이나 직접적으로 대조되는 함축내용을 갖는 하나의 맥락을 이루는 일련의 상정내용을 찾는 일이다. 그 가능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릴리에게는 같이 올 사람이 없었다는 점, 같이 올 사람이 없어서 그녀가 슬펐다는 점, 그녀의 슬픈 미소 뒤에는 메리, 피터, 조안, 그리고 밥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된 숨은 이야기가 있고, 상상력있는 청자는 다양한 노선에서 그 숨은 이야기를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적합성을 찾는 과정 중에 생기는 이런 약성 함축의미가 시적 효과를 가져온다.

표준적 맥락과 전제를 넘어서게 해서 전형적인 시적 효과를 낳는데 (14)의 경우 한층 더하다. 동일한 수사방법을 사용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오는 인지적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적합성 이론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4. 은유(metaphor)

우리가 시 등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은유를 이용한 창의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이런 은유적 표현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맥락적 지식을 활용해서 그 함축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이때 시적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시적 효과를 내는 은유가 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시간은 돈이다’와 ‘남자는 늑대다’처럼 일상적인 언어에서 쉽게 은유적 표현을 접하게 된다. 적합성 이론은 시에서 나오는 은유와 일상 언어에 나오는 은유를 다른 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이론 내에서 일관되게 취급했다.

이 장에서는 은유에 대한 의미적 분석인 비교이론과 상호작용 이론을 살펴보고 그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용론적 분석인 적합성 이론으로 은유를 설명할 것이다.

4.1 은유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

은유에 대한 논의는 Aristotle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시학에서 은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비교이론의 토대가 된다.

- (15) 은유는 한 사물에 그 사물이 아닌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전이 (transference)는 속에서 종으로, 종에서 속으로, 종에서 종으로, 혹은 유추의 바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익환 1985, 259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20세기까지 이어져 오다가 Richards와 Black에 의해 이론적인 체계화를 이룬다. Richard는 은유를 'vehicle' 과 'tenor' 로 분석하여 둘의 특수한 상호작용에서 비유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을 비교이론과 상호작용이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4.1.1 비교 이론(Comparison theory)

비교 이론에서는 은유적 발화가 둘 이상의 대상간에 비교나 유사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은유는 직유로부터 나오며 단지 술부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일 뿐이다. (16)의 'John is a wolf' 는 'John is like a wolf' 라는 직유문장에서 like라는 유사성을 나타내는 술어관계가 생략된 표현이며, 두 문장은 동일한 의미해석을 받는다고 보았다.

- (16) John is a wolf.
(17) John is like a wolf.

그러나 비교이론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남긴다. 첫째, 유사성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은유표현이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8) John is a block of ice.
(19) John has an emotional makeup similar to the coldness of a block of ice.

은유표현 (18)을 직유표현 (19)로 바꾸어도 은유는 줄어들지 않고 coldness라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둘째 은유표현이 직유표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완전히 올바른 해석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20) The reporter hammered the politician.
(21) What the reporter reported about the politician was like someone hammering a nail.

(20)과 같은 문장에서 청자는 (21)과 같은 의미를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2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 theory)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은유적으로 사용된 표현의 의미내용과 이를 둘러싼 문자그대로의 맥락의 의미내용 사이에 상호작용(interaction)이 있다고 주장한다. Katz와 Fodor에 의해 제시된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의 틀을 이용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2) The stone died.

stone의 의미자질중 [non-living]이 있고, die의 의미자질중 [living]이 있는데 자질전승에 의해 stone의 [non-living]자질이 die에 첨가되어, 동사가 살아있는 주어를 취할 수 있고 살아있지 않은 주어를 취할 수 있게 만든다. 자질전승에 의해 제시되는 은유해석은 어느 정도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색한 면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Searle(1982)이 지적했듯이 이 이론 역시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은유적 표현이 있는데 문자그대로의 윤곽(frame)이 없는 경우가 있다.

(23) The bad news is a block of ice.

주어에 'the bad news' 라는 은유적 표현을 넣으면 주어와 술어 모두 은유표현이므로 문자그대로의 윤곽이 없어 상호작용으로 은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많은 은유적 표현들은 의미를 표현하는 의미 자질보다는 지시물의 은유적 초점인 부수적이고 사실적인 실제 세계의 속성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의미론적 해석을 넘어서는 연상작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 은유해석이 논리적인 면을 지니고 있지마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4.2 은유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

은유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은 위에 언급했듯이 문제점이 있기에, 은유적 표현의 의미와 맥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Grice(1975)는 은유를 참이라고 믿는 것만을 이야기하라는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을 의도적으로 어겨서 얻어지는 함축의미로 취급하지만, 은유적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 논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문제에 대해 Searle(1979)은 은유의 해석원리를 제시한다. 주어진 발화가 일단 대화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발화를 일련의 화용론적 해석규칙이나 해석원칙에 비추어 본다고 말한다. Searle(1979)은 7가지 세부원리를 제시해서 이전의 이론이 해결할 수 없던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지만 그 원리들이 통합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이고 복잡하다. 그래서 보다 큰 통합원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적합성 원리가 은유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보고 Sperber와 Wilson의 적합성 이론으로 은유를 설명하겠다. (24)는 사은유(dead metaphor), 표준화된 은유로서 생활 속에 만연되었고 신선한 느낌을 전혀 전해주지 않고 시적 효과를 낳지 못한다.

(24) This room is a pigsty.

‘돼지우리’와 관련된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한 두개의 상징 내용에 액세스하게 된다. 돼지우리는 더럽고 너저분하다는 고정관념적 맥락에서 그 방이 더럽다는 점을 강력히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25)와 같은 시적 은유는 하나의 강한 함축의미를 갖지 않고 넓은 범위의 약한 함축의미를 낳고, 해석결과에 대해 청자의 책임이 커지며 이때 시적 효과가 생기며 창조적인 은유가 된다. 시인 르퐁뜨 드 릴에 대해 플로베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5) His ink is pale.

이 발화는 백과사전적 정보로는 도대체 해석이 안된다. 그래서 이 발화에 적합성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약성 함축의미들을 넓은 범위에서 찾아야 한다. 즉 르퐁뜨 드 릴이 써 놓은 글은 선명하지 않거나 흐려진대거나 하는 함축은, 한 사람의 글씨체가 그의 문체와 통한다는 전제가 부가된 맥락에서 한층 높은 정도의 적합성을 지니게 된다. 르퐁뜨 드 릴의 작품을 잘 모르는 사람은 가령 그의 시에 약한 데가 있고, 그의 작품이 오래 가지 않으며, 그가 시작에 온 정성을 쏟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를 좀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이 비평의 말을 좀 더 상세하고 요점 있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5)와 같은 시적 은유는 많은 약성 함축의미를 불러 일으켜서 시적 효과를 가져온다.

은유 역시도 특별한 해석능력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 은유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최적의 적합성을 이루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5. 결⁴⁵론

시적 효과란 적합성을 추구하는 중에 대단히 약한 함축의미들을 액세스하는 결과에서 나온다. 문체의 차이란 바로 적합성이 달성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이다. 문체가 달라지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는 시적 효과에 얼마나 의존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반복법, 공백화, 은유 등의 수사적 표현을 예로 들어 시적 효과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 수사적 표현 자체가 시적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된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성 함축의미를 불러일으켜서 시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같은 수사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수사적 표현들을 따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적합성 추구라는 큰 틀 안에서 일관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시적 효과나 문체는 문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것이지만 적합성 이론에서는 그것들이 문학텍스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비문학적 텍스트에도 나타나므로 별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 원리’에 의해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적합성 이론은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일관되고 통일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참 고 문 헌

- 이익환 (1985) *의미론 개론*, 한신문화사.
- Grice, Paul H.(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Ⅲ, 41~58.
- Pilkington, Adrian (1992) "Poetic effects." *Lingua* 87, 29~51.
- Searle, John(1979) "Metaphor." In Andrew Ortony(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 Cambridge U. Press, 92~ 123.
- Semino, Elena and Jonathan Culpeper (1995) "Stylistics." In Verschueren, Jef, Jan-Ola Ostman and Jan Blommaert (eds.) *Handbook of Pragmatics : Manual*. Amsterdam : John Benjamins, 513~520.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86) *Relevance :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 Blackwell.
- 김태욱, 이현호 공역 (1995) *인지적 화용론*. 서울 : 한신문화사.



